

신경장해 치료제 비타메진

당뇨병이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위험도를 증폭시킨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당뇨병은 혈당조절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몇년이 지나면 신체내의 여러장기에 걸쳐 합병증이 발생하게되며 결과적으로 이들 합병증이 극도의 건강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당뇨인이 잘 걸리는 3대 만성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꼽을 수 있다.

당뇨병성 신경장애는 당뇨병으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중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병증중 하나.

당뇨병의 신경장애는 당뇨병에 대한 자각증세 없이 먼저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 전문의에 따르면 5년이상 당뇨병을 앓아온 당뇨병 환자들중 약 반수이상인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은 대체로 당뇨병의 조절이 나쁜 환자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당뇨병의 조절상태에 따라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아 당뇨병의 대사이상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뇨환자중 50% 이상이 신경장애

신경병증의 증상은 대개 좌우대칭적으로

하지(下肢)발끝쪽부터 이상이 생기는데 저려오거나, 통증이 오며 안정때 또는 야간에 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은 특히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화끈거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가운 느낌, 조여드는 느낌때문에 이불이나 옷이 닿아도 아플 정도로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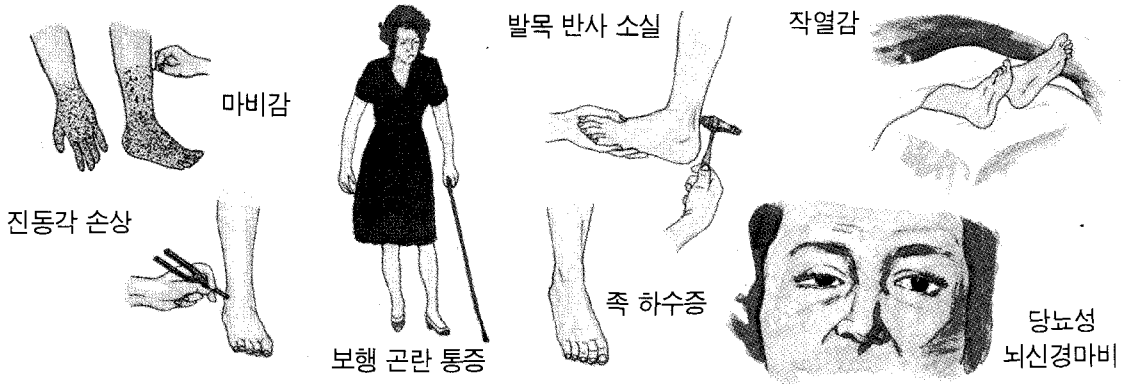
반면 통증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수개월 내지 수년후 신경이 파괴되고 나면 저절로 소실된다. 이때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므로 상처가 나기쉽고 세균감염이 잘돼 손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괴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혈당관리가 급선무

치료방법은 우선 혈당을 정상으로 조절해주는 것이 급선무. 흔히 사람들은 아스피린 등의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증의 근본적 치료에는 별효과가 없다는 것.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후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러한 신경장애 치료약물로는 알도즈환원효소억제제, 갱글리노사이드제제, 프로스

• 말초신경장애의 증상



타글란딘E₁, 비타민B 복합체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확실한 치료효과는 계속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판중인 신경장애 치료제로는 한일약품인 제조발매중인 비타민등이 있다.

비타민은 일본 三共(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타민 B₁의 독특한 유도체인 벤포티아민에 엽산피리독신(비타민B₆)과 시아노코발타민(비타민B₁₂)을 고함량으로 배합, 제제화함으로써 비타민B₁, B₆, B₁₂의 대사장애에 기인된 각종 질환의 원인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합 비타민 제제이다.

특이한 화학구조의 복합비타민 제제

한일약품(주)에 따르면 비타민의 성분은 모두 신경의 대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특히 특이한 화학구조를 가진 벤포티아민은 체내 활성형으로의 전환률의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장기에 고농도로 이행되고 있

다.

성분·함량은 50mg 1캡셀당 벤포티아민(엽산치아민으로서 50mg)은 69.15mg, 엽산 피리독신 50mg, 시아노코발라민 0.5mg이 함유되어 있다. 모양은 담홍색분말이며 상반은 적색, 하반은 담황색의 경질 캡셀제이다.

말초신경염(당뇨병성, 알콜성), 말초신경마비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류의 수요가 증대, 식사로부터 섭취 불충분한 비타민 보급의 효능도 있다.

용량은 50mg제제인 경우 1일 성인이 1~2캡셀, 25mg제제인 경우 2~4캡셀을 복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가끔 위부 불편감, 발진, 소양감, 오심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나타날때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포장단위는 100, 500캡셀(50mg), 500캡셀(25mg)로 시판중이며 실온보존에 사용기간은 4년이다. 